

가족분화수준, 가족관계의 질 및 친밀감간의 관계

남 순 현* 한 성 열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 자녀 381명을 대상으로 가족분화수준, 가족관계의 질 및 친밀감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첫째, 가족분화수준과 가족관계의 질간의 관계를 통하여 가족분화의 개념이 원가족에 대해 지각하는 정서적 건강과 실제 가족관계에서 심리적 안녕감을 나타내는 개념인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가족분화수준과 가족관계의 질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원가족의 가족분화수준과 성인기 자녀의 이성파트너와의 친밀감간의 관계를 토대로 원가족의 부모와의 정서적 역동이 성인기 자녀의 현재 이성파트너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성인기 자녀는 모든 하위체계에서 원가족의 가족분화수준과 이성파트너와의 친밀감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아들이 딸보다 부모의 가족분화수준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가족분화수준, 가족관계의 질, 친밀감, 원가족의 정서적 힘, 성차

* 교신저자: 남순현,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 136-701
e-mail) shnam@korea.ac.kr

오늘날 가족의 관계적 기능에 대한 요구는 기존의 가족연구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현대 가족에 대한 체계론적 관점은 상호작용하는 구성원들의 복합체로서 체계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구성원들 모두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양식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변화는 가족관계에서 정서적 역동이 중요함을 보다 더 강조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 자녀들을 대상으로 원가족(family of origin, 자신이 출생하여 신체적, 정신적 및 정서적으로 성장한 가족)과 자녀의 핵가족의 구성원들간의 관계가 자녀의 이성파트너와의 관계에 어떻게 상호영향을 주고받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분화수준과 가족관계의 질

가족과정(family process)을 설명하는 하나의 개념으로서 가족분화는 가족구성원들간의 연결성과 분리성의 균형의 정도를 조정해주는 상호작용유형이다. 연결성(connectedness)이란 “의미있는 타인과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한 개인이 원가족과 심한 정서적 분리”를 나타내는 정서적 단절(emotional cut-off)과 반대된다(Kerr & Bowen, 1988). 또한 분리성(separateness)은 “의미있는 타인과 구별되는 자아를 유지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가족구성원들이 정서적으로 상당히 가까워 개인의 감각이나 경계가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서적 융합(emotional fusion)과 반대된다(Bowen, 1978). 따라서 가족구성원들 모두가 연결성과 분리성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그 가족은 효율적으로 기능하게 된다.

또한 가족분화는 원가족으로부터의 정서적 건강(family-of-origin emotional health)을 의미한다. 개

인이 지각하는 원가족으로부터의 정서적 건강수준은 원가족 내 대인관계에 필요한 정서적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며, 개인의 정서적 건강과 결혼생활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Fine, 1988). 즉 원가족으로부터 적절히 자기분화되어 있는 개인은 심리적으로 적응을 잘 할뿐만 아니라 결혼 후에도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유지한다. 전춘애와 박성연(1994)은 개인이 지각하는 원가족으로부터의 정서적 건강척도를 분석한 결과, 친밀성과 자율성이 개인이 원가족에 대해 지각하는 정서적 건강의 주 요인이라고 밝혔다.

가족구성원들간의 친밀성과 자율성의 균형으로 정의되는 가족분화는 높은 수준, 중간 수준 및 낮은 수준으로 나뉜다. 높은 수준의 가족분화란 가족구성원들간의 대인간 거리가 연결성과 분리성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 가족체계 내에서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가족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성장에 있어서 개별성과 자율성을 발달시키는 동시에 의미있는 타인과의 정서적 친밀성과 친근함을 촉진시킨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가족분화를 보이는 가족은 가족 외적인 변화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정체성과 통합을 유지하려는 안정성을 지닌다(Allison & Sabatelli, 1988).

중간 수준의 가족분화는 가족구성원들이 개별성과 친밀성의 균형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가족분화를 보이는 가족구성원들 보다 덜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가족을 의미한다. 중간 수준의 가족분화가 이루어진 가족구성원들은 대개 경직된 가족체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가족구성원들은 외부의 변화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민감한 반응을 하지 만, 가족 외적 혹은 내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가족체계가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자아를 통합할 능력이 없다. 즉 중간수준의 가족분화를 보이는 가족구성원들에게 있어서 개별화되고 심리적으로 분리된다는 것은 가족체계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가족스트레스에 대해서 구성원들은 개인의 성장을 방해하는 대처전략을 선택하며, 이는 가족체계를 가족구성원들간의 융합과 정서적 하나됨의 상태로 만들게 된다 (Gavazzi & Sabatelli, 1990).

낮은 수준의 가족분화는 가족구성원들이 가족 내 거리조절유형에 있어서 분리성과 연결성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가족을 의미한다. 이런 가족의 구성원들은 연결성없이 분리성만 보이거나 분리성없이 연결성만 보이는 두 가지 극단적인 거리조절 유형을 보인다. 극단적인 이타를 강조하는 거리조절 유형은 가족구성원들이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반드시 필요한 정서적 친밀감을 갖지 못한다. 반면에, 극단적인 밀착을 강조하는 거리조절 유형은 가족구성원들간의 대인간 경계가 모호하여 개인의 자율성과 개별성을 방해한다. 즉 구성원들은 정서적 융합과 소속감을 강요받는다. 따라서 낮은 수준의 가족분화를 보이는 가족 구성원들은 여러 가지 정서적, 인지적 차원에서 개인의 성장을 방해받는다 (Allison & Sabatelli, 1988).

이러한 가족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 유형은 가족구성원들간의 가족관계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Hudson, Acklin, 및 Bartosh(1980)는 가족 전체에서 야기되는 갈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척도(Index of Family Relations)를 개발하였고, 연구자들은 이 척도가 단지 가족관계를 검토하고 평가할 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라고 하였다. 이들은 가족관계의 질(quality of family relationships)을 “가족관계에서 야기되는 가족구성원들간의 갈등의 심각성 정도와 가족 안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정도”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Hudson 등(1980)은 가족구성원들간의 관계에서 갈등이 적고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수록 개인은 높은 적응수준과 안녕감을 지각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가족분화수준이 높을수록 가족 내에서

개인이 겪게 될 스트레스가 적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Sabatelli와 Anderson(1991)은 가족체계의 역동이 친구관계와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부모와 자녀관계에서 가족분화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친구와의 관계에서 지지적이고, 불안과 우울을 덜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Gavazzi(1993)도 가족분화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문제행동을 덜 보였다고 하였다. 즉 부모와 자녀관계에서 가족분화수준이 낮은 자녀는 가족 내 문제(예,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의 갈등, 고립, 충동적인 행동 등), 학교에서의 문제(예, 학업성적 저하, 결석, 충동적인 행동 등), 친구관계에서 문제, 비행, 자살시도, 우울 및 낮은 자존감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 자녀관계에서 높은 수준의 가족분화는 자녀가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이외의 관계에서 보다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부부관계 역시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쳤다. 부부 불화가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보고를 토대로 Harrist와 Ainsle(1998)은 부부관계에 자녀가 매개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즉 부부관계가 부모와 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관계 또한 부부의 불화에 영향을 미친다.

Harrist 등(1998)의 연구는 Bartle과 Anderson(1991)의 결과에서도 지지되었다. Bartle과 Anderson(1991)은 12세에서 19세의 청소년들과 그들의 부모로부터 얻은 자료에서 가족분화가 덜 된 부모는 유사한 가족분화수준을 보이는 자녀 혹은 부모보다 더 낮은 가족분화수준을 보이거나 더 높은 가족분화수준을 보이는 자녀와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부부관계의 정서적 과정이 부모와 자녀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부부관계에서 야기

되는 불안정한 정서를 자녀와의 지나친 밀착을 통하여 세대교차적 연합을 형성함으로써 부부관계에서 야기되는 긴장을 해소시키고 가족 내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찾으려고 시도할 수 있다. 또한 불안수준이 높은 자녀는 부모가 건강한 부부관계를 맺고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통해서 부모 중 어느 한쪽과 삼각관계를 시도하거나 문제행동을 보이면서 부모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부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고, 효율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며, 자녀의 문제행동은 비행, 알콜남용, 불안 및 우울 등과 같은 부적응을 낳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족분화수준은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이외의 관계에서 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족관계의 질은 부부관계가 자녀에게 혹은 자녀의 행동이 부부관계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분화수준과 자녀의 친밀한 관계

Bowen은 핵가족에서 원가족의 영향을 강조하였다(Kerr & Bowen, 1988). 즉 원가족 내에서 습득한 가족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 방식이 결혼한 자녀의 핵가족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여기서 원가족의 영향이란 기혼 자녀가 부모와 형성된 밀착과 이탈 정도뿐만 아니라 연결성과 분리성의 균형정도에 따른 정서적 긴장, 즉 정서적 힘(emotional force)이 한 개인이 배우자를 만나서 관계를 맺을 때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압력을 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유은희와 박성연(1989)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애착과 자율성이 균형있게 발달한 성인 자녀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다고 보고함으로써 핵가족 내 부부관계에서 원가족의 지속

적인 영향을 시사하였다. 즉 원가족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가족분화를 보이는 개인은 안정되고 만족한 결혼생활을 보였다.

이러한 정서적 힘은 이미 결혼한 부부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성의 친구 혹은 배우자를 만나는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Benson, Larson, Wilson 및 Dem(1993)는 977명의 미혼 자녀들을 대상으로 자녀의 이성관계에서 원가족의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부모와의 관계에서 융합과 통제로 인한 정서적 문제를 지각하고 있는 자녀들은 높은 수준의 불안을 보였고, 자녀가 이성과 의사소통하는 유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자녀의 불안 수준은 이성친구가 자신을 거부하거나 자신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간에 삼각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녀는 높은 수준의 불안을 유발하지는 않았지만, 자녀의 이성관계에서 부정적인 의사소통(aversive communication)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족의 정서적 연속성은 핵가족 내 부부 혹은 자녀의 이성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낮은 수준의 가족분화를 지닌 개인은 낮은 수준의 가족분화를 지닌 이성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결합은 정서적 융합을 초래한다. 이성관계의 정서적 융합은 불안정한 것이며, 원가족으로부터 정서적 거리감을 증가시킨다. 반면에 원가족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건강하다고 지각하는 개인일수록 높은 수준의 가족분화를 보이며 안정된 이성관계를 유지한다.

Appleton(1981)은 프로이드 이론에 근거하여 여성들이 결혼한 후에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갈등의 기저에는 원가족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Appleton은 81명의 여성들과의 면접을 통하여 부녀관계에 대해서 휴식기

(Oasis: 30대 아버지와 아동기 딸), 갈등기(Conflict: 40대 아버지와 시춘기 딸), 분리기(Separation: 50대 아버지와 성인기 딸)를 통한 하나의 종단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가족은 시간경과에 따라 발달적 변화과정을 겪는다(Duvall, 1977). Appleton의 모델은 부부가 결혼을 통하여 가족을 형성한 후,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시기부터 그 자녀가 성장하여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게 되는 시기까지 가족체계의 종단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맛벌이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Appleton의 모델은 부녀관계 이외에 부자관계, 모자관계 및 모녀관계에 모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갈등기를 거쳐서 분리기에 있는 자녀는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대상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성적 욕망을 느끼게 된다. 자녀의 이러한 과정에서 부모는 지속적으로 정서적 힘을 가하며, 부모가 자녀의 사랑을 간섭하려고 하거나 자녀가 부모와 정서적으로 매우 밀착되어 있는 경우, 원가족의 정서적 역동은 자녀의 사랑에 그대로 전수된다. 즉 이성관계에서 자녀는 높은 수준의 불안을 보인다(Benson, Larson, Wilson & Demo, 1993). 그러므로 분리기에 있는 부모는 3단계계를 거치는 동안 자녀를 진정한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인식하여야 하며, 자녀가 새로운 대상과 건강한 만남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

Appleton은 아버지와 미혼의 딸과의 공생적 관계(symbiotic), 우호적 관계(friendly) 및 소원한 관계(distant)가 분리기의 딸이 이성친구를 만나거나 배우자를 선택하여 가족을 형성하게 될 때도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원가족의 부녀관계는 딸이 새로운 대상을 선택하여 가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거나 혹은 다른 한쪽의 극단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보였다. Appleton의 연구결과는 부녀관계에서 높은 수준의 가족분화는 친밀감있는 부녀관계를 보일 것이고, 낮은 수준

의 가족분화는 공생적이거나 소원한 부녀관계를 보일 것이라는 Sabatelli 등(1991)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Appleton의 연구는 기존의 가족체계이론자들이 정신분열병 환자가 있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가족투사과정을 살펴본 결과를 통하여 원가족의 정서적 힘의 중요한 대상은 대부분 어머니라고 강조한 것에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정서적 힘을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서구의 핵가족 정서체계가 자녀에게 역기능을 나타내는 가족의 정서적 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핵가족의 정서적 힘이 자녀에게 역기능적 기능을 보이는 하나의 예로서는 부모와 기혼 자녀간의 세대 교차적 연합에서 파생된 결과인 고부간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핵가족 내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아내가 아들과 병리적인 연합을 함으로서 부부간의 긴장을 해소하려는 시도에서 야기된 것으로, 아들이 결혼을 하여 새로운 부부관계를 형성한 후에도 어머니가 기혼의 아들과의 병리적인 연합을 계속 유지하려고 압력을 가하는 정서과정이다. 부부간의 긴장에서 생기는 모자간의 세대 교차적 하위체계 형성은 아들이 어머니로부터 독립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하고 결혼 후 배우자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Teyber, 1983).

경제 수준의 증가는 여성의 취업의 기회를 증가시켰고, 결혼 후에도 많은 여성들이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혔다. 이에 따라 어머니의 전통적인 가족 역할로서 자녀 양육에 대해 원가족의 부모들이 관여하는 예가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진정 어머니가 딸의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딸의 핵가족과 진정 부모와의 물리적 거리가 좁혀지고 접촉 빈도가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처가와 변소는 멀수록 좋

다는 속담은 옛말이 되었다. 전업 주부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결혼 후 딸의 자녀양육에 대한 친정 어머니의 참여도 증가는 핵가족에 부부의 확대가족으로 아내의 부모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결혼 후 멀리 떨어져 살아도 아들보다는 딸이 부모와 잦은 접촉을 하고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한다는 Rossi와 Rossi(1990)의 연구결과에서도 지지되었다. 따라서 전통적인 한국 가족구조에서는 흔히 볼 수 있었던 고부간의 갈등과 같은 현상은 오늘날 점차 어머니와 딸과의 세대 교차적인 연합을 통하여 결혼 후 장모와 사위간의 갈등과 같은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

성차연구

가족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구조적 축인 성차(gender difference)는 부모와 자녀간의 정서적 유대감, 접촉 빈도, 상호도움을 주고받는 정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Rossi & Rossi, 1990). Rossi 등(1990)은 결혼 후 원가족과 떨어져 사는 경우에도 기혼의 딸이 기혼의 아들보다 부모와 더 잦은 접촉을 하고 친밀한 정서적 유대를 유지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관계의 정서적 유대감은 가족 내 다른 어떤 하위체계보다 어머니와 딸에게서 가장 강하였다(Rossi & Rossi, 1990).

또한 흥미롭게도 어머니와 성인기 딸간의 친밀감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는 반면, 청소년기 이후 아버지와 성인기 아들간의 친밀감에는 변함이 없었다(Rossi & Rossi, 1990). 이러한 차이는 부모와 성인기 자녀간에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사건이 아버지와 아들보다는 어머니와 딸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즉 딸은 결혼한 이후에도 자녀의 양육방식에 대

해서 어머니와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도움을 주고받지만, 아들은 아버지와 친밀감을 증가시킬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중년기 이후 아버지에게 성인 아들은 더 이상 보살피 주어야 하는 존재라기보다는 자신의 발달과업을 수행해나가는 또 다른 경쟁자이다.

최근 성인 남자들이 가족의 정서적 기능을 인식하면서 부모와 자녀관계에 과거보다 많이 관여하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부모와 자녀관계에서 아버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양미경(1996)은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 훨씬 비정규적이며 낮은 빈도로 자녀양육에 참여하지만, 어머니 못지 않게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양미경은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아버지가 딸보다는 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아들의 자녀양육에 보다 많이 참여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기존의 많은 성차 연구들은 부모와 자녀관계에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어머니와 아들보다는 어머니와 딸의 정서적 유대가 훨씬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Knudson-Martin(1994)은 여자들이 다른 사람과의 정서적 관계를 통하여 그들 스스로를 정의하고 자기의 유대감을 개발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와의 관계에 많은 관여를 하게 되며, 전생애동안 딸이 아들보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더 많은 유대감을 형성한다. 하지만 오늘날 가족의 관계적 기능에 대한 강조는 남녀 모두에게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가족관계에서 어머니의 영향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영향과 정서적 유대감에서 자녀의 성차에 관한 연구는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성인 자녀가 이성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원가족으로부터 정서적 영향을 주고받는 과

정에 성차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1. 가족분화수준과 가족관계의 질간의 관계에는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2. 가족분화수준과 가족관계의 질간의 관계에는 성차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가족분화수준과 성인기 자녀의 이성파트너와의 친밀감간의 관계에는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4. 가족분화수준과 성인기 자녀의 이성파트너와의 친밀감간의 관계에는 성차가 있을 것이다.

6.17년)이었으며, 이성교제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는 18명(11.4%), 1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하인 경우는 48명(30.4%),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하인 경우는 30명(19.0%), 1년 이상에서 2년 이하인 경우는 29명(18.4%), 2년 이상인 경우는 37명(20.8%)이었다.

기혼 자녀(남자 116명, 여자 107명)의 경우, 평균연령은 28.64세(남자 28.25세, 여자 28.61세)였고, 평균 결혼지속기간은 2.12년(SD = 2.20년)이었다. 배우자 선택은 중매혼이 16명(7.2%), 연애혼이 174명(78.0%), 절충혼이 30명(13.5%), 기타가 2명(0.8%), 무응답이 1명(0.4%)이었으며, 현재 결혼상태는 초혼이 219명(98.2%), 재혼이 1명(0.4%), 이혼이 2명(0.8%), 무응답이 1명(0.4%)이었다.

측정도구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1999년 6월 22일부터 7월 9일까지 그리고 2000년 9월 6일부터 10월 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대학생 미혼 자녀와 그의 결혼한 형제·자매 및 부모를 유목적적 편의 표집하였다. 모집된 대학생 미혼 자녀 438명 중 현재 이성친구가 있는 158명과 기혼 자녀 250명의 연령범위는 19세에서 56세 사이였다. 연구 대상자의 연령범위가 너무 크므로 본 연구에서는 19세에서 35세 사이의 성인기에 속하는 자녀(Erikson, 1963) 381명만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성인기 자녀 381명(남자 197명, 여자 184명)의 평균 연령은 24.71세(SD = 6.73세)였다.

미혼 자녀(남자 81명, 여자 71명)의 경우, 평균 연령은 21.97세(남자 22.74세, 여자 21.17세)였고, 현재 이성친구와의 평균 교제기간은 1.69년(SD =

가족분화척도(The Differentiation In The Family System Scale, DIFS). 가족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Anderson과 Sabatelli (1992)가 개발한 척도로서 Likert 식 5점 척도이며 11개의 순환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 체계에서 받을 수 있는 총 점수는 11에서 55이다. 본 연구에서 성인기 자녀들은 각각 어머니의 행동에 대한 아버지의 지각, 아버지의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자녀의 행동에 대한 아버지의 지각, 아버지의 행동에 대한 자녀의 지각, 자녀의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어머니의 행동에 대한 자녀의 지각 등 대상만 다른 동일한 내용으로 된 문항에 각각 응답해야 한다.

한 개인의 부모의 가족분화 점수는 어머니의 행동에 대한 아버지의 지각 점수와 아버지의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점수 각각의 총 점수를 곱한 것이다. 각 하위체계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개인의 지각 점수의 총점을 곱한 것은

이자간의 가족분화수준과 가족분화수준의 차이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행동에 대한 아버지의 지각 점수에 30점, 아버지의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점수에 30점을 받았고 B라는 사람이 각각 50점과 10점을 받았을 때, 각 총점을 더하면 A와 B의 부모는 모두 60점의 가족분화점수를 받게 된다. 그러나 아버지의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점수에서 30점을 받은 사람은 10점을 받은 사람보다 가족분화가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개인의 지각 점수의 총점을 곱하면 A의 부모의 가족분화점수는 900점이고, B의 부모의 가족분화점수는 500점으로 가족분화수준의 차이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남순현과 한성열(1999)의 연구에서 가족분화척도는 각 하위체계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개인의 지각점수에서 각각 $\alpha = .65$, $\alpha = .72$, $\alpha = .69$, $\alpha = .68$, $\alpha = .73$, $\alpha = .77$ 의 내적 신뢰도를 보였다.

가족관계척도(Index of Family Relations, IFR). 가족관계에서 야기되는 만족과 갈등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Hudson, Acklin, 및 Bartosh(1980)가 개발한 척도로서 Hudson 등(1980)은 이 척도가 가족관계를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 간주하였다.

가족관계척도의 원래 문항들은 “우리 가족은 ~이다”로 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단위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부모 하위체계, 아버지나 하위체계, 어머니나 하위체계로 분석단위를 나누었으며, 원래 문항들은 “우리 부모는 ~이다”, “아버지와 나는 ~이다”, “어머니와 나는 ~이다”로 바꾸어 사용되었다. 따라서 각 연구대상자는 “우리 부모는 많은 갈등이 있다”, “아버지와 나는 많은 갈등이 있다”, “어머니와 나는 많

은 갈등이 있다” 등 대상만 다른 동일한 내용으로 된 문항에 각각 응답해야 한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이며 2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하위체계에서 받을 수 있는 점수는 25에서 125이다.

가족관계척도는 임상 집단과 정상 집단을 구별해줌으로서 변별 타당도를 검증하였고, 임상 집단에서 내적 신뢰도는 .98이었으며 대학생 정상 집단에서 내적 신뢰도는 .91이었다(Hudson, Acklin, & Bartosh, 1980). 본 연구에서 가족관계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각 하위체계에서 각각 $\alpha = .70$, $\alpha = .67$, $\alpha = .69$ 였다.

친밀감척도(Intimacy Scale). 성인기 자녀의 이성파트너와의 친밀감 정도는 권석만(1997)이 번역한 Sternberg의 사랑의 삼각형이론척도(The Triangle Theory of Love Scale) 중에서 친밀감과 관련된 15 문항을 토대로 측정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식 9점 척도이며, 이성파트너와의 친밀감 점수로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점수는 15에서 135이다. 본 연구에서 미혼 자녀와 기혼 자녀는 각각 $\alpha = .94$ 와 $\alpha = .91$ 의 높은 내적 신뢰도를 보였다.

연구결과

원가족의 가족분화수준과 가족관계의 질간의 관계

원가족의 가족분화수준과 가족관계의 질간의 관계에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서 가족분화수준과 가족관계의 질간의 관계를 상관 분석하였다.

표 1은 각 하위체계에서 가족분화수준과 가족관계의 질간의 관계에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서 가설 1을 지지하였다. 부모 가족분화수준은 부모 가족관계의 질과 .75, 어머니 -

표 1. 가족분화수준과 가족관계의 질간의 관계

	1	2	3	4	5	6
1. 부모 가족분화수준	1.00					
2. 어머니-나 가족분화수준	.40(.42)**	1.00				
3. 아버지-나 가족분화수준	.67(.81)**	.46(.50)**	1.00			
4. 부모 가족관계의 질	.75(.97)**	.35(.37)**	.56(.63)**	1.00		
5. 어머니-나 가족관계의 질	.32(.33)**	.77(1.02)**	.32(.33)**	.48(.52)**	1.00	
6. 아버지-나 가족관계의 질	.65(.78)**	.42(.45)**	.80(1.10)**	.75(.97)**	.48(.52)**	1.00

() Fisher Z' 계수, ** p < .01

나 가족분화수준은 어머니-나 가족관계의 질과 .77, 아버지-나 가족분화수준은 아버지-나 가족관계의 질과 .80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표 1에서 부모 가족분화수준과 어머니-나 가족분화수준간의 상관은 .40이고, 어머니-나 가족분화수준과 아버지-나 가족분화수준간의 상관은 .46인데 반해, $t = .91, m$, 부모 가족분화수준과 아버지-나 가족분화수준간의 상관은 .67로 더 높았다. $t = 4.48, p < .01$. 또한 부모 가족관계의 질과 어머니-나 가족관계의 질간의 상관은 .48이고, 어머니-나 가족관계의 질과 아버지-나 가족관계의 질간의 상관은 .48인데 반해, $t = .00, m$, 부모 가족관계의 질과 아버지-나 가족관계의 질간의 상관은 .75로 더 높았다. $t = 5.63, p < .01$. 즉 부모 가족분화수준과 가족관계의 질과 아버지-나 가족분화수준과 가족관계의 질간의 상관이 다른 하위체계간의 상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가족분화수준과 가족관계의 질간의 상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부모 가족분화수준과 어머니-나 가족관계의 질간의 상관은 .32이고, 어머니-나 가족관계의 질과 아버지-나 가족관계의 질간의 상관은 .48인데 반해, $t = 2.39, p < .01$, 부모 가족분화수준과 아버지-나 가족관

계의 질간의 상관은 .65로 높았다, $t = 5.54, p < .01$. 그리고 부모 가족관계의 질과 어머니-나 가족분화수준간의 상관은 .35이고, 어머니-나 가족분화수준과 아버지-나 가족분화수준간의 상관은 .46인데 반해, $t = 1.65, m$, 부모 가족관계의 질과 아버지-나 가족분화수준간의 상관은 .56으로 높았다, $t = 3.35, p < .01$.

원가족의 가족분화수준과 가족관계의 질간의 관계에서 성차

원가족의 가족분화수준과 가족관계의 질간의 관계에 성차가 존재할 것이라는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서 먼저, 성인기 아들과 딸 각각의 가족분화수준과 가족관계의 질간의 관계를 상관분석한 후, 각 하위체계에서 나타난 성인기 아들과 딸 각각의 가족분화수준과 가족관계의 질간의 상관계수를 Fisher Z' 계수로 전환시켜 성인기 아들과 딸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t-test를 실시하였다.

표 2는 성인기 아들이 지각한 가족 내 하위체계간 가족분화수준과 가족관계의 질간의 상관 관계를 살펴본 것이다. 연구결과 아들은 모든 하위체계 내 가족분화수준과 가족관계의 질간의 관계

표 2. 성인기 아들이 지각한 가족분화수준과 가족관계의 질간의 관계

	1	2	3	4	5	6
1. 부모 가족분화수준	1.00					
2. 어머니-아들 가족분화수준	.44(.47)**	1.00				
3. 아버지-아들 가족분화수준	.64(.76)**	.44(.47)**	1.00			
4. 부모 가족관계의 질	.76(1.00)**	.43(.46)**	.46(.50)**	1.00		
5. 어머니-아들 가족관계의 질	.28(.29)**	.69(.85)**	.25(.27)**	.53(.59)**	1.00	
6. 아버지-아들 가족관계의 질	.59(.68)**	.44(.47)**	.70(.87)**	.64(.76)**	.54(.60)**	1.00

() Fisher Z' 계수, ** p < .01

에서 정적 상관을 보임으로서 가설 1을 지지하였다. 아들의 경우, 부모 가족분화수준은 부모 가족관계의 질과 .76, 어머니-아들 가족분화수준은 어머니-아들 가족관계의 질과 .69, 아버지-아들 가족분화수준은 아버지-아들 가족관계의 질과 .70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아들의 경우, 부모 가족분화수준과 어머니-아들 가족분화수준간의 상관은 .44인데 반해, 부모 가족분화수준과 아버지-아들 가족분화수준간의 상관은 .64로 더 높았다. $t = 2.53, p < .01$. 또한 부모 가족관계의 질과 어머니-아들 가족관계의 질간의 상관은 .53인데 반해, 부모 가족관계의 질과 아버지-아들 가족관계의 질간의 상관은 .64로 크

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 = 1.48, ns$.

이러한 경향은 가족분화수준과 가족관계의 질간의 상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부모 가족분화수준과 어머니-아들 가족관계의 질간의 상관은 .28인데 반해, 부모 가족분화수준과 아버지-아들 가족관계의 질간의 상관은 .59로 높았다, $t = 3.44, p < .01$. 그리고 부모 가족관계의 질과 어머니-아들 가족분화수준간의 상관은 .43이고, 부모 가족관계의 질과 아버지-아들 가족분화수준간의 상관은 .46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 = .33, ns$.

표 3은 성인기 딸이 지각한 가족 내 하위체계 간 가족분화수준과 가족관계의 질간의 상관 관계

표 3. 성인기 딸이 지각한 가족분화수준과 가족관계의 질간의 관계

	1	2	3	4	5	6
1. 부모 가족분화수준	1.00					
2. 어머니-딸 가족분화수준	.37(.39)**	1.00				
3. 아버지-딸 가족분화수준	.73(.93)**	.50(.55)**	1.00			
4. 부모 가족관계의 질	.76(1.00)**	.30(.31)**	.63(.74)**	1.00		
5. 어머니-딸 가족관계의 질	.35(.37)**	.85(1.26)**	.38(.40)**	.46(.50)**	1.00	
6. 아버지-딸 가족관계의 질	.72(.91)**	.44(.47)**	.87(1.33)**	.81(1.13)**	.45(.49)**	1.00

() Fisher Z' 계수, ** p < .01

를 살펴본 것이다. 연구결과, 딸은 모든 하위체계 내 가족분화수준과 가족관계의 질간의 관계에서 정적 상관을 보임으로서 가설 1을 지지하였다. 딸의 경우, 부모 가족분화수준은 부모 가족관계의 질과 .76, 어머니-아들 가족분화수준은 어머니-아들 가족관계의 질과 .85, 아버지-아들 가족분화수준은 아버지-아들 가족관계의 질과 .87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딸의 경우, 부모 가족분화수준과 어머니-딸 가족분화수준간의 상관은 .37인데 반해, 부모 가족분화수준과 아버지-딸 가족분화수준간의 상관은 .73으로 더 높았고 $t = 4.66, p < .01$, 부모 가족관계의 질과 어머니-딸 가족관계의 질간의 상관은 .46인데 반해, 부모 가족관계의 질과 아버지-딸 가족관계의 질간의 상관은 .81로 높게 나타났다, $t = 5.42, p < .01$.

이러한 경향은 가족분화수준과 가족관계의 질간의 상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부모 가족분화수준과 어머니-딸 가족관계의 질간의 상관은 .35인데 반해, 부모 가족분화수준과 아버지-딸 가족관계의 질간의 상관은 .72로 높았고 $t = 4.67, p < .01$, 부모 가족관계의 질과 어머니-딸 가족분화수준간의 상관은 .30이고, 부모 가족관계의 질과 아버지-딸 가족분화수준간의 상관은 .63으로 높았다, $t = 3.71, p < .01$.

하지만 아들과 딸 모두 부모 하위체계, $t = .20$,

어머니-나 하위체계, $t = .00$, ms, 아버지-나 하위체계, $t = .12$, ms,에서 가족분화수준과 가족관계의 질간의 관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으로서 가설 2는 지지되지 않았다.

가족분화수준과 성인기 자녀의 이성파트너와의 친밀감간의 관계

원가족의 가족분화수준과 성인기 자녀의 이성파트너와의 친밀감간의 관계에는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하여, 원가족의 가족분화수준과 성인기 자녀의 이성파트너와의 친밀감간의 관계를 상관 분석하였다.

표 4는 가족 내 하위체계간 가족분화수준과 성인기 자녀의 이성파트너와의 친밀감간의 관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임으로서 가설 3을 지지하였다. 즉 성인기 자녀는 부모 가족분화수준과 이성파트너와의 친밀감간에 .31, 어머니-나 가족분화수준과 이성파트너와의 친밀감간에 .47, 아버지-나 가족분화수준과 이성파트너와의 친밀감간에 .35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가족분화수준과 성인기 자녀의 이성파트너와의 친밀감간의 관계에서 성차

가족 내 각 하위체계에서 원가족과의 가족분화

표 4. 가족분화수준과 성인기 자녀의 이성파트너와의 친밀감간의 관계

	1	2	3	4
1. 부모 가족분화수준	1.00			
2. 어머니-나 가족분화수준	.48**	1.00		
3. 아버지-나 가족분화수준	.47**	.60**	1.00	
4. 이성파트너와의 친밀감	.31**	.47**	.35**	1.00

** $p < .01$

표 5. 가족분화수준과 성인기 아들의 이성파트너와의 친밀감간의 관계

	1	2	3	4
1. 부모 가족분화수준	1.00			
2. 어머니-아들 가족분화수준	.59**	1.00		
3. 아버지-아들 가족분화수준	.58**	.69**	1.00	
4. 이성파트너와의 친밀감	.42(.45)**	.47(.51)**	.36(.38)**	1.00

() Fisher Z' 계수, ** p < .01

수준과 성인기 자녀의 이성파트너와의 친밀감간의 관계에 성차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해서 먼저, 아들과 딸 각각을 가족분화수준과 이성파트너와의 친밀감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후, 각 하위체계에서 나타난 아들과 딸 각각의 가족분화수준과 이성파트너와의 친밀감간의 상관계수를 Fisher Z' 계수로 전환시켜 t-test를 실시함으로써 아들과 딸간의 유의한 차이를 살펴보았다.

표 5는 아들이 지각한 가족 내 하위체계간 가족분화수준과 이성파트너와의 친밀감간의 관계를 살펴본 것이다. 연구결과에서 모든 하위체계 내 가족분화수준과 아들의 이성파트너와의 친밀감간의 관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임으로서 가설 3을 지지하였다. 아들의 경우, 부모 가족분화수준은 이성파트너와의 친밀감과 .42, 어머니-아들 가족분화수준은 이성파트너와의 친밀감과 .47, 아버

지-아들 가족분화수준은 이성파트너와의 친밀감과 .36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표 6은 딸이 지각한 가족 내 하위체계간 가족분화수준과 이성파트너와의 친밀감간의 관계를 살펴본 것이다. 연구결과에서 모든 하위체계 내 가족분화수준과 딸의 이성파트너와의 친밀감간의 관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임으로서 가설 3을 지지하였다. 딸의 경우, 부모 가족분화수준은 이성파트너와의 친밀감과 .18, 어머니-딸 가족분화수준은 이성파트너와의 친밀감과 .48, 아버지-딸 가족분화수준은 이성파트너와의 친밀감과 .32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하지만 각 하위체계별 가족분화수준과 이성파트너와의 친밀감간의 관계에 유의한 성차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부모 하위체계, $t = 4.18, p < .01$, 를 제외한 나머지 부모-자녀 하위체계, 어머니-나, $t = .20, ns$; 아버지-나 $t = .71, ns$,에서는

표 6. 가족분화수준과 성인기 딸의 이성파트너와의 친밀감간의 관계

	1	2	3	4
1. 부모 가족분화수준	1.00			
2. 어머니-딸 가족분화수준	.32**	1.00		
3. 아버지-딸 가족분화수준	.30**	.46**	1.00	
4. 이성파트너와의 친밀감	.18(.18)*	.48(.52)**	.32(.33)**	1.00

() Fisher Z' 계수, ** p < .01, * p < .05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부모의 가족분화수준이 높을수록 딸보다 아들이 이성파트너와 높은 친밀감을 형성함으로써 가설 4를 지지하였고, 부모-자녀 하위체계에서 높은 가족분화수준은 아들과 딸 모두에게 이성파트너와 높은 친밀감을 형성함으로써 가설 4를 지지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 자녀가 이성파트너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때, 원가족이 정서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본 것이다. 먼저, 가족분화의 개념이 가족의 정서적 역동과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로 유용한지를 가족분화수준과 가족관계의 질간의 상관 관계를 토대로 살펴보았다. 성인기 자녀들은 모든 하위체계에서 가족분화수준과 가족관계의 질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가족분화수준과 가족관계의 질간의 관계에는 성차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가족분화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구성원들은 갈등이 적고 안정된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가족분화수준이 낮을수록 가족구성원들은 갈등이 많고 불안정한 가족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는 가족분화수준이 가족의 정서적 역동성과 원가족으로부터의 정서적 건강을 나타내는 개념이지만, 실제 가족관계에서의 만족과 갈등의 정도와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알 수 있는 가족기능의 객관적인 지표임을 시사한다.

각 하위체계의 가족분화수준과 가족관계의 질간의 상관을 살펴볼 때, 흥미롭게도 부모 하위체계와 아버지-나 하위체계간의 상관이 부모 하위체계와 어머니-나 하위체계간의 상관보다 높았다. 각 하위체계간의 상관계수를 Fisher Z'계수로 전환한 후 t-test를 실시한 결과, 두 상관계수간에

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자녀가 부모 가족분화수준과 가족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어머니-나 가족분화수준과 가족관계의 질보다는 아버지-나 가족분화수준과 가족관계의 질이 높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족체계의 관계적 기능에서 자녀는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보다 더 불안정한 변인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자녀는 가족 안에서 어머니를 늘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정서적 지원을 해주는 상징적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Umberson, 1992), 아버지와 같이 지내는 시간들을 보다 더 의미있게 해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반대로 자녀는 또한, 아버지-나 가족분화수준과 가족관계의 질이 어머니-나 가족분화수준과 가족관계의 질보다 높을 때, 부모관계가 더 좋다고 지각하였다. 따라서 자녀는 가족의 관계적 욕구에서 어머니의 참여보다는 아버지의 참여를 보다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경향은 자녀가 성인기인 경우에도 여전히 가족 안에서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어머니에게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기 어머니와의 깊은 신뢰는 자녀가 성장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심리적 안녕감을 주게 된다. 반면에 바쁜 아버지는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 어머니는 자녀에게 늘 많은 정서적 지원을 제공해주는 사람이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못하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족구성원들간에 아버지의 변화에 대한 요구는 점차적으로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기회를 증가시켰고(양미경, 1996), 엄한 아버지, 자상한 어머니의 전통적인 부모관에서 자상한 아버지, 엄한 어머니로의 부모관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는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가속화되었고, 자녀 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관심증가는 비단 맞벌이 부부뿐만 아니라

젊은 연령층의 부부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되었다.

과거 우리 사회의 집단주의적이고 성취지향적인 가치관은 개인이 가족체계의 구성원일 때보다 사회집단의 일원일 때 강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집단주의적이고 성취지향적인 가치관은 개인주의적이고 가족중심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되고 있다. 연령층이 낮은 부모일수록 직장보다는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지나치게 일에 매달리기보다는 개인의 건강과 여가를 즐기려고 한다. 이는 개인에게서 공적인 생활보다는 사적인 생활, 즉 가족의 영역이 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과거 어머니의 치마폭에 가려있던 자녀들은 아버지와 관계를 통하여 다른 가족구성원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지각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가족관계에서 아버지가 중요한 변인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연구결과는 이러한 경향을 지지하였다. 즉 결혼 이후에도 딸이 아들보다 원가족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하게 보인다는 서구의 연구 결과들(Shehan & Dwyer, 1989; Rossi & Rossi, 1990)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아들과 딸 모두 가족관계에서 아버지의 영향이 중요하다고 지각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관계적 기능에 대한 욕구에서 아들과 딸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가족분화가 원가족과의 정서과정을 살펴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정서과정이 역사성을 지니고 세대를 거쳐서 반복된다면, 성인기 자녀가 이성파트너를 만나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원가족의 가족분화수준과 성인기 자녀의 이성파트너와의 친밀감간의 관계를 탐색해보았다.

각 하위체계별로 원가족의 가족분화수준과 이성파트너와의 친밀감 정도간의 관계를 상관 분석

해 본 결과, 성인기 자녀는 모든 하위체계에서 가족분화수준과 이성파트너와의 친밀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원가족과 높은 수준의 가족분화를 보이는 성인기 자녀는 이성파트너와 높은 친밀감을 형성하였고, 낮은 가족분화수준을 보이는 성인기 자녀는 이성파트너와 낮은 친밀감을 형성하였다. 이는 원가족과의 정서적 단절에서 야기되는 정서적 긴장을 해소하는 방법에 있어서 성인기 자녀는 이성파트너와의 불안정한 정서적 융합보다는 정서적 소원함을 더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 전에 부모와의 정서적 관계가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는 자녀가 결혼 후에도 부모와 이러한 유대를 지속한다면, 자녀는 죄책감을 느끼고 핵가족의 경계선이 침입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Bowen, 1978). 반면에 부모로부터 정서적 단절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배우자가 단지 배우자로서 의미를 지니는 것 이외에 부, 모, 형제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거부에 지나치게 과민반응을 보이고 결혼관계에서 긴장을 초래한다(McGoldrick, 1980). 따라서 결혼 전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균형있는 연결성과 분리성의 상호작용은 분리기에 있는 자녀의 이성관계에 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자녀가 배우자를 선택하여 결혼생활을 하는데 만족감을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가족의 가족분화수준이 성인기 자녀의 이성파트너와의 친밀감간의 관계에서 성차를 보이는 정도는 부모 하위체계를 제외하고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성인기 아들이 성인기 딸보다 부모의 가족분화수준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부모 중 어느 한쪽과 성인기 자녀간의 세대교차적 연합이 이성파트너와의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탐색하기는 어려웠다. 과거 고부간의 갈등이나 최근 사위와 장모간의 갈등의 원인이 모두 원가족의 어머니

니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가족관계에서 아버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가족 안에서 어머니의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관계적 기능이 모두 중요하다고 지각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딸보다 아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다.

이성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간의 사랑은 건강한 가족의 기본이고 유용한 가족과정이며 핵심차원이다. Burr, Day, 및 Bahr(1993)는 가족은 건강한 개인에게 필요한 사랑을 준다고 하였다. 즉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은 자녀는 사회적으로 유능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자율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 반면에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는 분리감, 적대감, 공격성, 자기확신 부족, 정서적 무반응 및 혼동스런 친구관계 등으로 갈등을 겪게 된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은 자녀는 성인기가 되어 이성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친밀감이 높은 정서적 유대를 공유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석만 (1997).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 심리학*. 서울 : 학지사.
- 남순현, 한성열 (1999). 가족분화 개념에 대한 새로운 탐색 : 단일차원인가? 다차원인가?.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8(2), 209-222.
- 양미경 (1996).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부모 역할 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87-101.
- 유은희, 박성연 (1989). 모자간의 애착 및 모의 결혼 관계에 따른 아들 부부의 결혼만족도 : 인과적 모형. *대한가정학회지*, 27(2), 149-162.
- 전춘애, 박성연 (1994). 부부의 자아분화수준과 출생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 지각이 결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2(4), 117-133.
- Allison, M. D., & Sabatelli, R. M. (1988). Differentiation and individuation as mediators of identity and intimacy in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3, 1, 1-16.
- Anderson, S. A., & Sabatelli, R. M. (1992). The differentiation in the family system scales : DIF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0, 89-101.
- Appleton, W. S. (1981). *Father and daughter : A father's powerful influence on a woman's life*. Doubleday & Company, Inc., Garden City, New York.
- Bartle, S. E. & Anderson, S. A. (1991). Similarity between parents' and adolescents' levels of individuation. *Adolescence*, 26, 913-924.
- Benson, M. J., Larson, J., Wilson, S. M., & Demo, D. H. (1993). Family of origin influences on late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663-672.
- Bowen, M.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 Aronson.
- Burr, W. R., Day, R. D., & Bahr, K. S. (1993). *Family science*.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Duvall, E. (1977).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 Philadelphia : Lippincott.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 Norton.
- Fine, M. (1988). The relationship of perceived health on family of origin to levels of state and trait anxiety. *Family Therapy*, 15, 51-57.
- Gavazzi, S. M. (1993). The relation between family differentiation levels in families with adolescent

- and the severity of presenting problems. *Family Relations*, 42, 463-468.
- Gavazzi, S. M., & Sabatelli, R. M. (1990). Family system dynamics, the individuation process, and psychosocial development,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5, 4, 500-519.
- Harrist, A. W., & Ainsle, R. C. (1998). Marital discord and child behavior problems : Parent-child relationship quality and child interpersonal awareness as mediators, *Journal of Family Issues*, 19, 2, 140-163.
- Hudson, W. W., Acklin, J. D., & Bartosh, J. C. (1980). Assessing discord in family relationships, *Social Work Research and Abstracts*, 21-29.
- Kerr, M. E., & Bowen, M. (1988). *Family evaluation: An approach based on Bowen theory*. New York/London : W. W. Norton & Company.
- Knudson-Martin, C. (1994). The female voice applications to Bowen's family systems theor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0, 1, 35-46.
- McGoldrick, M. (1980). The joining of families through marriage : The new couple in E. Carter & M. McGoldrick(Eds.), *The family life cycle, a framework for family therapy*, NY : Gardner Press.
- Rossi, A. S. & Rossi, P. H. (1990). *Of human bonding*. NY: Aldine de Gruyter.
- Sabatelli, R. M. & Anderson, S. A. (1991). Family system dynamics, peer relationships, and adolescents' psychological adjustment. *Family Relations*, 40, 363-369.
- Shehan, C. L., & Dwyer, J. W. (1989). Parent-child exchanges in the middle years : attachment and autonomy in the transition to adulthood. In J. A. Mancini(Eds.), *Aging parents and adult children*. MS : Lexington Books.
- Teyber, E. (1983). Effects of parental coalition on adolescent emancipation from the famil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9, 3, 93-120.
- Umberson, D. (1992). Relationships between adult children and their parent :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both gener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664-674.

1 차원고 접수일 : 2002. 3. 4.
수정원고 접수일 : 2002. 4. 6.
최종원고 접수일 : 2002. 7. 6.

The family differentiation level, quality of family relationship, and intimacy

Nam, Soonhyeon

Han, Seongyeul

Departmen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among the level of family differentiation, quality of family relationship, and intimacy with their partners in 381 adult children. Firs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family differentiation and quality of family relationship. The result showed that the level of family differentiation was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correlated to quality of family relationship. This finding indicated that family differentiation may be used for an objective and useful index to measure the dynamics of emotional system and the level of family-of-origin emotional health. Second, the influence of the family of origin was studied through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differentiation of family of origin, and adult children's intimacy with their partners. It was found that the family differentiation level was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related to adult children's intimacy with their partners at each subsystem, but family differentiation levels of parents more influenced on adult male's intimacy than on adult female's intimacy with their partners.

key words : family differentiation level, quality of family relationship, intimacy, emotional forces of family of origin, gender difference